

광남시론

포용과 상생으로 미래를 열자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前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헬기와 총칼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맨손으로 물리친 위대한 국민이고, 문화강국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80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았으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분단과 전쟁은 나라와 겨레에 큰 고통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을 딛고 기상을 벗어났고, 폐허 위에서 번영을 이룩했으며, 민주주의의 빛나는 성취도 일구어 이젠 그동안 제각각 지냈던 국민주권의 새로운 대통령을 보고 있다.

그러나 빠른 성장은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와 균열을 남겼다. 눈부신 발전의 뒤면에서 대립과 반목, 분열과 갈등은 일상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어느새 생각이 다르며 적으로 등지고, 의견이 다르면 고개를 돌리는 적대와 불통의 황무지로 바뀌고 있다. 말은 거칠어지고 의견이 다르면 대화가 멈추는 곳으로 전락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최소한의 믿음과 연대도 사라지면서 나라의 내일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나아진다는 소박한 믿음은 조롱

의 대상이 됐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희망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격정이 됐고, 거세게 몰아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도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게 한다.

책임은 전적으로 이 시대를 일군 우리들 몫이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성장과 번영을 이룩했으나 그 과정에서 적대와 반목의 씨를 뿌렸고, 경쟁과 갈등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었다.

속도와 효율만을 앞세운 성장의 논리는 포용과 공존, 절제라는 공동체의 기본 가치를 흔들었고, 기성세대는 급속한 노령화의 부담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떠넘긴 채 불안한 생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변명의 여지 없는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고통스러운 상황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

포용과 공존, 그리고 절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대립과 분열, 적대와 반목으로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사회를 살릴 유일한 대안이다. 포용은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너른 마음이고, 공존은 서로 다른 사람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함께 사는 태도이다. 그리고 절제는 하고 싶은 걸 모두 하지 않고, 남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지키는 자제다.

지금처럼 진영이 극단으로 치닫는 흐름에 대하여 지도자들부터 각성해야 한다.

여기에 최우선으로 앞장서야 할 분야가 정치권이고, 기성세대의 몫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치권이 정치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권력만 잡으려는 정쟁으로 치닫고 반대 아닌 반대의 목소리

만 내고 있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민은 알고 있는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함은 물론 반성조차 없음이 문제다.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국정의 가치로 삼고, 이러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직시하면서 정치권의 자성과 기성세대의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인공(AI) 지능을 비롯한 기술의 빠른 변화는 인류의 삶과 생존방식을 근본에서 흔들고 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의 발전만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국제질서와 삶의 속도를 돌아보며 자연과 공존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그 방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국제적으로도 인류가 겪고 있는 지구적 위기의 일부이다.

세계화 시대 기후·생태의 붕괴와 제국주의 망령으로 제3차대전도 도래한 전쟁의 폐해는 먼 나라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닥쳐왔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 전쟁의 기억과 긴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과 대립의 아픔을 몸으로 겪어왔기에 평화와 공존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남과 북은 현실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자. 국내적으로도 우리부터 진보와 보수, 이념 갈등을 넘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로 세대 갈등을 극복하자. 포용과 공존, 절제 그리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정립하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다름을 인정하고, 합리적 진보는 개혁적 보수를 끌어안고, 개혁적 보수는 합리적 진보를 이해하는 포용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우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기고

봄을 여는 끝벌의 첫 비행

김성연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3월이 되면 들과 산에는 겨우내 얼어 있던 공기가 풀리며 봄기운이 서서히 스며든다. 차가운 바람은 점차 물러가고, 따스한 햇살이 땅을 데우기 시작하면 자연은 가장 먼저 꽃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린다.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의 문을 열고, 이어 산수유와 유채꽃이 노란빛으로 들판을 물들이며 생명의 기운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겨울 내내 고요하던 벌통 주변에도 조금씩 활기가 감돌기 시작한다.

따뜻한 날 오후가 되면 일벌들이 하나둘씩 벌통 밖으로 나와 꽃을 찾아 날아오르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이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다.

양봉 농가에서는 이 시기를 두고 "이제 한 해 양봉이 시작됐다"고 말하곤 한다. 긴 겨울을 견뎌낸 벌군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시기이자,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봄철은 기대와 설렘만큼이나 세심한 관리와 긴장을 요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월동을 마친 벌군의 상태는 저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벌통을 열어 보면 소비 여러 장을 빼곡히 채운 만큼 세

력이 강한 벌군이 있는 반면, 몇 장의 소비에 벌이 드문드문 붙어 있는 약한 벌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약군은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비슷한 세력의 벌군과 합병하여 안정적인 군세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세력이 좋은 벌군은 여왕벌이 충분히 산란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산란 공간이 부족하면 벌군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봄철 벌군 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는 먹이 관리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해서 항상 꿀벌의 외부 활동이 원활한 것은 아니다. 기온이 낮거나 비가 이어지는 날에는 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벌통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먹이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왕벌의 산란이 줄어들거나 유충 육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초봄에는 화분떡과 물을 적절히 공급하여 벌군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시기의 먹이 관리가 벌군의 세력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봄은 일교차가 큰 계절이다.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반복되면 벌통 내부 온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어린 유충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보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통의 틈새를 점검하고 보온재

를 활용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세력이 약한 벌군일수록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질병과 해충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대표적인 해충인 응애는 벌군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봄철은 벌군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피해도 전체 벌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방 중심의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어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기온이 잦아지고 꽃의 개화 시기가 불규칙해지면서 꿀벌의 활동 시기와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해충 피해까지 더해지면 양봉 관리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벌군 관리 기술의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벌들이 꽃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농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작은 날갯짓 하나하나에는 한 해 농사의 희망과 결실이 담겨 있다. 올봄에도 현장의 세심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이 더해져 건강한 벌군이 자라고, 나아가 풍성한 농업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수첩

‘전국 1위’ 전남 출산율이 던지는 메시지

엄재용

경제부 기자



전국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증가한 가운데 전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1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영광군은 합계출산율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지자체 1위를 차지했고, 장성·강진·함평 등 8개 시군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되며 전남의 출산 경쟁력을 보여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한다.

이번 합계출산율 상승은 전국적인 구조 변화와 맞물

려 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199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이르는 2차 에코붐 세대가 30대 초·중반에 진입하면서 혼인과 출산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더해지면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은 이러한 전국적 흐름에 더해 적극적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만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부수당을 비롯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확대, 임신 전·후 건강검진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출산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이 전국 1위 유지의 배경으로 꼽힌다.

출산율 증가의 배경에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도 자리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남녀 갈등이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에는 극단적인 갈등 담론이 확산되며 결혼 자체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분위기가 강했고, 이는 혼인 감소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이러한 반동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에코붐 세대 효과와 코로나19 이후 지연 수요가 일정 시점 이후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청년층의 주거·고용 불안, 양육 비용 부담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 출산율 1위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역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과 사회 분위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도, 앞으로도 출산율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기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환경 개선, 양육 부담 완화 등 보다 구조적인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사설

민주당 ‘마타도어’ 지방선거 경선 안된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광주·전남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치닫고 있다.

지역을 위한 정책과 비전은 뒷전인 채 후보 간 도 넘은 ‘네거티브’전, 근거 없는 흑색선전, 각종 의혹 제기 등 예전 경선 때마다 불거졌던 불쌍 사나운 구태를 답습하며 ‘혼탁경선’으로 전락하고 있다.

처음이라 할 일이 많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 경선도 후보 간 공방전과 고발전이 전개되고 있다. 예비경선 직후, 출처불명의 득표율 순위 문자가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문자는 각 후보의 구체적인 순위와 득표율이 표기돼 있는 등 나름 그럴싸했지만 결국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평백한 허위 사설”이라며 진화에 나서면서 허위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허위 순위에 피해를 본 후보측은 “명백한 선거테러”라며 “거짓 문제를 퍼트린 배후세력을 수사기관에 남기고 연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나섰다.

또 다른 후보 측은 의혹을 제기한 후보측이 한 언론사가 예전 여론조사를 마치 자신의 예비경선 지지율인양 속여 유권자를 현혹했다며 당 선관위에 고발했다. 내달 ‘5파전’으로 치러지는 본선을 앞두고 후보간 ‘진흙탕 싸움’이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도 마찬가지다. 광주 한 구청장 경선에서는 특정 후보의 3선 도전 지지 목적의 문자 메시지가 유무효 논란이고 다른 구청장 경선은 ‘혐의 없음’으로 끝난 한 후보의 비위 의혹이 침소봉대돼 퍼져 나가고 있다. 또 전남 모 군수 경선에서는 유력 후보 자녀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 규명에 나섰다.

이 같은 현상은 광주·전남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특성상, ‘경선 승리=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오로지 승리에 혈안이 돼 불·탈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이같은 혼탁선거가 계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등으로 잘나가는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안철수’가 이끈 국민당에 광주·전남 20석 중 18석을 내줬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경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러 지역민심이 멀어지게 했던 ‘예전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매각·이전설’ AI페퍼스, 반드시 존치해야

창단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낸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존치가 시련대에 올랐다고 한다. 모기업의 재정난과 맞물린 구단 경영 위기로 인한 매각설과 이전설이 휩싸이면서 팀의 미래가 안갯속에서 빠져든 것이다.

AI페퍼스는 2025-2026시즌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16승 20패 승점 47점으로 리그 6위를 기록하며 구단 최다승리와 최다승점을 경신했고, 창단 이후 첫 리그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 V리그에 2021~2022 시즌에 합류한 지 5년 만이다. 특히 상위권 팀을 상대로 10승을 거두며 이제는 여자 프로배구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이번 시즌 반등은 외국인 선수들의 선전과 국내 젊은 선수들의 꾸준한 활약 등 선수단 구성과 운영의 변화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흥행 면에서도 여자배구 열기를 주도하고 있다. 창단 당시 1313명 이었던 평균 관중 수는 5년만에 2445명으로 1100여명이 늘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만만치 않았다. 조선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분석 결과, 올 시즌에만 42억원, 5년간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AI페퍼스는 지역의 유일한 프로배구단으로 배구 유소년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시즌 종료 후 심각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모기업 페퍼저축은행을 둘러싼 매각설이 재점화되면서 구단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이 됐다. 실제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OK금융그룹, 태광그룹 등과 배구단 인수 협상을 벌였으나 매각가에 대한 견제차로 인수 작업이 불발됐고 지난 1월 대형 친인 프랜차이즈에 인수를 제안해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구단 매각설과 함께 연고지 이전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데 있다.

광주시와의 연고지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5월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계약 연장을 위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이다. 만약 연고지 이전이 현실화되면 지역 배구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 자리잡은 AI페퍼스를 지키기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법을 앞두고 지역 유일한 동계 프로 스포츠팀을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는 애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신부 370-7050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